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 동화에 나타난 <형(兄)>의 이미지 일고찰

임 유 희*

(e-mail : stocknim@naver.com)

目 次

1. 머리말
 2. 통계적 분석 및 형제에 관한 기본 인식
 3. <형>의 역할과 관계
 4. 맺음말
-

1. 머리말

『미야자와 겐지 교본 전집(校本宮沢賢治全集)』(7권-11권)에는 미완성본 및 중복 작품을 포함하여 총 151편의 동화(童話)작품이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 151편¹⁾의 작품 가운데 이름이 같고 내용이 유사한 중복 작품을 제외²⁾한 총 137편의 작품을 토대로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형(兄)>의 이미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자연, 광물, 동북지방의 향토적 풍물, 불교 등등은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³⁾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소재이다. 또 그의 작품 가운데는 자신의 아버

* 中央大学校 大学院 日語日本文学 博士課程。近代文学専攻。

1) 『校本宮沢賢治全集』卷(7-11)에 수록된 동화 작품 수. 동화작품의 편수는 『校本宮沢賢治全集』를 따랐고 동화의 내용은 『(新)校本宮沢賢治全集』를 인용했다.

2) 이하의 14편이 중복된 작품으로서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본고에서 중복작품으로서 분류 및 제외한 작품 목록이다. ① 「かしはばやしの夜(初期形)」/② 「銀河鉄道の夜(初期形)」/③ 「グスコンブドリの伝記」/④ 「三人兄弟の医者と北守将軍(散文形)」/⑤ 「つきよのけだもの月夜のけだもの」/⑥ 「猫の事務所(初期形)」/⑦ 「畑のへり」/⑧ 「ひのきとひなげし(初期形)」/⑨ 「葡萄水」/⑩ 「フランドン農学校の豚」/⑪ 「北守将軍と三人兄弟の医者」/⑫ 「山男の四月(初期形)」/⑬ 「やまなし(初期形)」/⑭ 「雪渡り(雑誌発表形)」

지(宮沢政次郎)나 여동생 도시(トシ)등 그의 실제 가족이 소재가 된 작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개종(改宗) 문제로 다툰이 잦았던 아버지와 관계는 대표작 「쪽독새 별(よだかの星)」에서 대두⁴⁾되었으며 시(詩) 「영결의 아침(永訣の朝)」, 「소나무 잎(松の針)」, 「무성통곡(無声痛哭)」 등은 요절한 여동생 도시가 소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겐쥬 공원숲(虔十公園林)」,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グスコブドリの伝記)」 등을 통해서도 주인공에게서 겐지 자신⁵⁾을 가탁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가 다수의 작품에서 실제 현실의 자신과 가족을 주요 창작소재로 활용한 것은 가족에 관한 그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된 것이다. 동화 작품 가운데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는 작품수가 다수인 이유 또한 ‘가족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발화(発火)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가족에 관한 높은 관심도에서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그의 동화 작품 가운데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그 중에서도 <형>의 이미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동안 겐지 작품 연구에서 가족에 관한 연구는 동화 작품에 나타난 가족 연구가 아니라 겐지의 아버지나 여동생을 중심으로 한 실제 가족과 연계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실제의 가족이 아닌 동화 작품에 나타난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겐지에게 실존하지 않았던 <형>의 이미지를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작품 전반에 나타난 <형>만을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카치 아야(中地 文)가 「빛의 맨발(이치로는 누구인가)(ひかりの素足 (一浪とは誰か))」에서 작품 「빛의 맨발(ひかりの素足)」은 형이 동생의 보호자로 등장하며 형의 역할이 강조 되었다⁶⁾고 언급하였다. 이 논지(論旨)는 가족구성원의 부재와 형의 역할을 다룬 본고의 논지와도 유사성이 있다.

실로 겐지는 다양한 표현들과 소재들을 사용했지만 그 소재와 표현들은 각각 공통성과 일관성을 가지며 빈도수가 높다. 가족이라는 명제는 중복작품을 제외한 137편의 작품 중 약 62편에서 등장한다. 이 62편은 137편의 작품 중 가족간에 사용하는 호칭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이는 약 45%의 높은 점유율로, 상대적으로 겐지의 관심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명제에 대해 겐지가 매우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3)이하 겐지로 표기

4)吳善華 「「よだかの星」作品論」 『国文学解釈と鑑賞』 第61卷11号、至文堂、1996、p.56

5)原子朗 『宮沢賢治語彙辞典』 東京書籍、1999、p.227

6)中地 文 「ひかりの素足 (一浪とは誰か)」 『国文学解釈と鑑賞』 第65卷2号、至文堂、2000年、pp.49-50

는 것은 그를 거론함에 있어서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이야기 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등장하는 작품의 높은 빈도수에서도 알 수 있다.

그의 동화 작품 가운데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그 중에서도 <형>의 이미지 고찰은 실제로 형이 없었던 겐지가 형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흥미로운 전제에서 출발하며 그 고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제로 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화 작품 가운데 형의 존재를 자주 등장 및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여동생 도시, 그리고 자신이라는 실제 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과는 또 다른 패턴으로 겐지 동화의 소재적 차별성이 기본적으로 내포 된 것이다. 때문에 본고의 겐지 동화속 <형>의 이미지 고찰은 패턴이 다른 소재적 특성 또한 확인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겐지 동화 작품은 그가 생전 출판한 『주문이 많은 요리집(注文の多い料理店)』에 수록된 작품을 비롯하여 약 151편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 본고에서는 중복작품을 제외한 137편 작품 가운데 가족의 형태가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가족의 형태와 형제 관계를 먼저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내용별로 패턴화하여 형의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2. 통계적 분석 및 형제에 관한 기본 인식

(1) <형>이 묘사된 작품의 통계

『미야자와 겐지 교본 전집』에 수록 된 총 151편의 동화 작품은 중복 작품을 제외하면 137편의 작품으로 압축된다. 이 137편 중 가족이 등장하는 작품과 호칭별 빈도수는 아래의 <표1>, <표2>와 같다.

	작 품 제 목	父	母	祖父	祖母	兄弟	兄	姉	弟	妹	從兄	從弟	伯叔父母
1	青木大学士の野宿						1		1				
2	或る農学生の日誌	1	1										
3	いてふの実		1										
4	おきなぐさ										1	1	
5	貝の火	1	1										
6	蛙のゴム靴	1											
7	蛙の消滅	1											
8	学者アラムハラドの見た着物	1											
9	風の又三郎	1	1	1			1		1	1			

10	風野又三郎	1	1				1		1				1
11	鳥の北斗七星						1		1				
12	雁の童子	1	1	1			1		1		1	1	
13	革トランク	1	1										
14	黄いろのトマト	1	1				1			1			
15	銀河鉄道の夜	1	1					1	1				
16	グスコープドリの伝記	1	1				1			1			
17	蜘蛛となめくじと狸	1					1						
18	クンねずみ	1											
19	虔十公園林	1	1				1		1				
20	氷と後光	1	1										
21	サガレンと八月		1				1		1				
22	さるのこしかけ		1										
23	山地の稜		1				1	1	1	1			
24	三人兄弟の医者と北守將軍						1		1				
25	シグナルとシグナレス												1
26	紫紺染について		1										
27	十月の末	1	1	1	1		1		1				1
28	十力の金剛石	1											
29	水仙月の四日	1											
30	セロ弾きのゴーシュ	1	1										
31	谷						1		1				
32	台川	1											
33	種山ヶ原		1	1			1		1				
34	タネりはたしかにいちにち 噛んでゐたやうだった		1										
35	「旅人のはなし」から						1						
36	手紙 四						1	1			1		
37	毒もみのすきな署長さん		1										
38	とっこべとら子	1											
39	鳥箱先生とフウねずみ		1										
40	なめとこ山の熊		1	1									
41	樞ノ木大学生士の野宿	1	1				1		1				
42	二十六夜	1	1				1		1				1
43	猫の事務所 寓話						1						
44	猫の事務所	1	1				1	1					
45	畑のへり						1			1			
46	ひかりの素足	1	1				1		1				
47	ピザテリアン大祭						1						
48	氷河鼠の毛皮						1						
49	復活の前	1	1										
50	双子の星						1		1				
51	ペンネンネンネンネン・ネネ ムの伝記	1	1				1			1			
52	北守將軍と三人兄弟の医者						1		1				
53	洞熊学校を卒業した三人	1					1						
54	ポラーノの広場		1						1	1			
55	ポランの広場 第二幕			1									
56	ポランの広場		1	1									
57	祭の晩	1		1							1	1	
58	みちかい木べん		1				1		1				

59	やまなし	1					1		1				
60	雪渡り						1		1	1			
61	よく利く薬とえらい薬		1										
62	よだかの星						1		1				
계		31	33	8	1	8	27	3	23	8	3	3	4

<표1> 가족 호칭별 등장 작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	형제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사촌형	사촌 동생	백·숙 부모	총
31편	33편	8편	1편	8편	27편	3편	23편	8편	3편	3편	4편	62편
50%	51%	12%	1%	12%	43%	4%	37%	12%	4%	4%	6%	45%

<표2> 호칭별 등장 분포표

중복 작품을 제외한 동화 137편 중 총 62편에 가족이 등장한다. 그 등장 빈도수는 약 45%이다. 또 가족이 등장하는 62편 중 형제자매가 단 한사람이라도 등장하는 작품은 37편이고, 형이 등장하는 작품은 27편으로 그 비율은 각각 약 60%, 약 43%의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빈도수의 높음은 가족 혹은 형제에 대한 작가 겐지의 관심도와 비례할 것이다. 등장 가족호칭의 분포를 빈도수가 높은 순서로 적어보면 어머니→아버지→형→남동생의 순서로, 부모님 다음으로 형이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썩독새 별」 「은하철도의 밤(銀河鉄道の夜)」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 등 실제 가족, 아버지, 여동생, 겐지 자신과 관련성이 보이는 작품들도 있지만 실제로 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27편이라는 다수의 작품에서 빈도수 높게 등장한다.

(2) 형제에 관한 기본 인식

상기의 <표2>에서 형제라는 단어로써 검색된 8편의 작품 중 ‘형제’라는 단어에는 실제 형제관계가 아닌 친밀한 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의미전달용 쓰임이 있다. 「거미와 민달팽이와 너구리(蜘蛛となめくじと狸)」 「호라쿠마 학교를 졸업한 3인(洞熊学校を卒業した三人)」의 이 두⁷⁾ 작품에는 거미가 상대를 먹이로 잡아먹기 위해 속이며 “우리들은 형제다.”라고 안심시키는 묘사가 있다.

“드리지요. 드리고 말구요. 자. 드세요.” “아아! 감사합니다. 이제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달팽이는 머위 이슬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더 드세요. 당신과 나는 말하자면 형제. 핫하하. 자, 자, 더 드세요.”라고 민달팽이는 말했습니다. ⁸⁾

7) 두 작품은 전체 즐거리와 등장인물이 동일하지만 일정부분 상이(相異)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작품으로 구분했다.

상기의 예문은 민달팽이가 달팽이를 잡아먹기 위해 계락을 꾸미는 장면으로, 달팽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형제’라는 단어로써 친밀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달팽이는 또 도마뱀에게도 우리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에서 작가 겐지가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 가진 기본 인식을 알 수 있다. 즉 겐지의 ‘형제’에 대한 기본인식은 결속 혹은 절대적인 친근감이었다고 사료된다.

왕자는 또 긴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궁한 저편에 떨어져 있는 그의 친구는 정말로 그의 형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⁹⁾

상기의 예문은 작품 「「여행자의 이야기」에서(「旅人のはなし」から)」의 묘사이다. 또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행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형제였다는 의식, 즉 약간의 코스모폴리티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들은 만났습니다. 연미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껍고 조잡한 모직을 입은 농부도 있었고, 끈을 늘어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씬하게 마르고 젊은 군의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나라와 계급, 직업과 그 이름을 묻지 않고 단지 하나의 커다란 채식주의자 동맹으로서 ‘안녕’ 하고 인사했고 ‘축하해’ 라고 대답했습니다.¹⁰⁾

상기의 작품 「채식주의자 대축제(ビヂテリアン大祭)」에서도 형제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식성을 가진 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로써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한 공동체 의식 및 친밀성은 겐지가 가진 ‘형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작품전반을 흐르는 기본 인식이기도 하다.

8) 「あげますともあげますとも。さあ、おあかりなさい。」 「あ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助かります。」と云ひながらかたつむりはふきのつゆをどくどくのみました。「もとおあかりなさい。あなたと私は云はゞ兄弟。ハッハハ。さあ、さあ、もしおあかりなさい。」となめくちが云ひ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八卷、筑摩書房、1995、p.10

9) 王子は永い旅に又のぼりました、なぜなれば、かの無窮遠のかなたに離れたる彼の友達は誠は彼の兄弟であったからでありました、それですから今も歩いてゐるでせう。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二卷、筑摩書房、1995、p.237

10) 私たちは会ひました。燕尾服もあれば厚い粗羅紗を着た農夫もあり、綬をかけた人もあれば、スラッと瘠せた若い軍医もありました。すべてこれらは、私たちの兄弟でありましたから、もう私たちは国と階級、職業とその名をとはず、たゞ一つの大きなビヂテリアンの同朋として、「お早う、」と挨拶し「おめでたう、」と答へたのです。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九卷、筑摩書房、1995、p.217

3. <형>의 역할과 관계

(1) 조력자 및 보호자로서의 <형>의 역할

작품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간에 조력자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작품 「조개불(貝の火)」 「겐쥬 공원숲」 「축제의 밤(祭の晩)」 「은하철도의 밤」 등과 같은 작품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에 서로 협력하는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그 가운데 특히 형은 가족내에서 동생에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형이 조력자로서 등장하는 대표적 작품들은 「겐쥬 공원숲」,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 「다네야마가 들판(種山ヶ原)」, 「눈길 건너기(雪渡り)」, 「빛의 맨발」 등의 작품이 있다.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작 품	형의 행위
1	겐쥬 공원숲 (度十公園林)	겐쥬에게 삼나무를 심고, 기르는 방법을 지도해 줌
2	바람의 마타사부로 (風の又三郎)	도망가는 말을 쫓다가 길을 잃은 동생과 동생의 친구들에게 길을 안내해 줌
3	다네야마가 들판 (種山ヶ原)	도망간 소를 쫓다가 길을 잃은 다쓰지를 찾아와 길을 안내해 줌
4	눈길 건너기 (雪渡り)	길을 떠나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어른 여우를 만났을 때 주의 사항 등을 알려줌. 돌아오는 동생을 세 명의 형이 마중 나옴
5	빛의 맨발 (ひかりの素足)	눈길 속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노력함. 동생 대신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음
6	까마귀의 북두칠성 (烏の北斗七星)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 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동생에 대한 보호를 떠올림

<표3> 형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작품과 묘사

<표3>에 등장하는 작품들은 각기 형과 동생의 이야기가 묘사된 작품이다. 형의 조력자 및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형과 동생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난다. 한 작품씩 그 묘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겐쥬는 마치 참을 수 없다는 듯 싱글싱글 웃으며 형이 가르쳐 준 대로 이번에는 북쪽 경계부터 삼나무 묘목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중략) 겐쥬형이 거기에 한그루씩 묘목을 심어나갔습니다.11)

11) 度十はまるでこらえ切れないやうにここにこゝろ笑って兄さんに教へられたやうに今度は北の方の堺から杉苗の穴を掘りはじめました。(中略) 度十の兄さんがそこへ一本づつ苗を植えて行きました。

그때 마침 겐쥬형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숲을 보고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있는 겐쥬에게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지를 모으자. 쓸만한 썰감이 생겼네. 숲도 멋지게 되었구나.” 그러자 겐쥬도 겨우 안심하고 형과 함께 삼나무 아래에 구부리고 앉아 떨어진 가지를 모두 모았습니다.¹²⁾

상기의 두 예문은 「겐쥬 공원숲」에 나타난 조력자 형의 모습이다. 이 두 문장의 전후 문맥에서도 나타나지만 삼나무를 심고 싶어 하는 동생 겐쥬에게 삼나무를 심는 법과 키우는 법 등을 알려주는 조력자 형이 등장한다.

“형. 있어. 형. 왔어.” 이치로는 땀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어~이! 어~이! 거기 있어. 지금 갈게.” 저기 저편 우묵한 곳에서 이치로에게 형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양이 확하고 환하게 되더니, 형이 저편 풀속에서 웃으며 나왔습니다.

“잘 왔다. 모두 데리고 왔구나. 잘 왔어. 돌아갈 때 말을 데리고 가려무나. 오늘은 오후부터 구름질거야. 나도 조금 더 풀을 모으고 마칠테니까. 너희들 놀려면 저 둑 안에 있거라. 아직 풀어놓은 말 20마리가 있으니까.” 형은 저편으로 가려다가 뒤돌아보며 또 말했습니다.

“둑에서 밖에 나오지마. 길을 잃으면 위험하니까. 오후가 되면 또 올게”

“응. 둑 안에 있을께.” 그리고 이치로의 형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¹³⁾

상기의 예문은 「바람의 마타사부로」에 나타난 형의 모습이다. 산 위에서 말에게 풀을 먹이는 형은 동생 이치로와 이치로의 친구들을 어른스럽게 맞이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이후에 아이들은 산에서 말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데 이때 길 잃은 아이들을 찾아내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형이 담당한다. 이 장면은 「다네야마가 들판」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다네야마가 들판」에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卷、筑摩書房、1995、pp.104-105

12) そこへ丁度度十の兄さんが畑から帰ってやって来ましたが林を見て思わず笑ひました。そしてほんやり立ってゐる度十にきげんよく云ひました。「おう、枝集めべ、いゝ焚ぎものうんと出来だ。林も立派になつたな。」そこで度十もやっと安心して兄さんと一語に杉の木の下にくぐって落した枝をすっかり集め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卷、筑摩書房、1995、p.106

13) 「兄な、居るが。兄な、来たぞ。」一郎は汗を拭ひながら叫びました。

「おい。あゝい。其処に居ろ。今行くぞ。」ずうと向こうの窪みで、一郎の兄さんの声かしました。陽がぱつと明るくなり、兄さんがそっちの草の中から笑って出て来ました。「善く来たな。みんなも連れて来たのが。善く来た。戻りに馬こ連れでてけろな。今日あ午まがらきつと曇る。俺も少し草集めて仕舞がらな、うなだ遊ばばあの土手の中さ入ってろ。まだ牧(場)の馬二十四ばかりは居るがらな。」兄さんは向こうへ行かうとして、振り向いて又云ひました。「土手がら外さ出はるなよ。迷ってしまふづどあふないがらな。午まになつたら又来るがら。」「うん。土手の中にいるがら。」そして(一郎)の兄さんは行ってしまひ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一卷、筑摩書房、1996、pp.186-187

서는 소를 쫓아가던 동생 다쓰지가 길을 잃고 형이 다쓰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동생의 조력자, 보호자로서 등장한다.

“어디, 잠깐 보여줘. 하하. 학생들의 학부형뿐만 아니라 12세 이상의 내빈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여우가 진행을 꽤 잘하는구나. 나는 갈 수 없네. 할 수 없지. 너희들이 간다면 떡을 가지고 가라. 그래 이 가가미 떡이 좋겠다.”¹⁴⁾

형제 이치로 지로 사부로 문 입구에 나와서 “다녀와라. 어른 여우를 만나면 서둘러 눈을 감아버려. 그래 우리들이 노래를 불러줄까!”¹⁵⁾

상기의 두 예문은 「눈길 건너기」에서 동생들을 안전하게 지도하는 형들의 모습이다. 어른 여우를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 집을 떠나고 돌아오는 동생들을 배웅하고 마중하며 떡을 챙겨주는 모습 등 일련의 보호자로서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자 나오오. 어서 올라가. 눈이 온다구. 위에 가면 평지니까.” 이치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나오오는 형의 조금 변한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허둥대며 올라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마. 괜찮아. 뭐 1리도 안 남았어.” 이치로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¹⁶⁾

이치로가 눈이 쌓인 한 곳을 넘어가다 생각보다 눈이 깊어서 기어이 밭을 헛디뎠다 넘어졌습니다. 이치로는 몸이랑 손에 완전히 눈이 묻은 채 빠걱거리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만 나오오는 뒤에 서서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울었습니다.

“괜찮아. 나오오. 울지마.” 이치로는 말하면서 또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나오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 속에 손이 들어가서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 없어서 인사 할 때 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그대로 울고

14) 「どれ、ちよつとお見せ、ははあ、学校生徒の父兄にあらずして十二才以上の来賓は入場をお断(却)申し候。狐なんて仲々まくやつてるね。僕はいけないだね。仕方ないや。お前たち行くんならお餅を持って行つておやりよ。そら、この鏡餅がいゝだらう。」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二卷、筑摩書房、1995、p.107

15) 兄弟の一郎二郎三郎は戸口に出て、「行つておいで。大人の狐にあつたら急いで目をつぶるんだよ。そら僕ら囃してやらうか。」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二卷、筑摩書房、1995、p.107

16) 「さあ樞夫、早ぐのぼれ、雪降って来た。上さ行けば平らだはんて。」一郎が心配さうに云ひました。樞夫は兄の少し変わった声を聞いてにはかにあわてました。そしてまるでせかせかとのぼりました。「あんまり急ぐな。大丈夫(夫)だはんて、なあにあど一里も無いも。」一郎も息をはづませながら云ひ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八卷、筑摩書房、1995、p.289

있는 것입니다. 이치로는 곧 달려가서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눈을 털어주고 나서 “자 조금만 가면된다. 걸을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응” 하고 나라오는 말했습니다만 그 눈은 눈물이 가득한 채 계속 저편을 보며 입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¹⁷⁾

이치로는 정말로 그 빨간 눈에 빨려들 것 같이 비틀비틀 두 세 걸음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겨우 멈춰서 꼭 나라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두려운 녀석은 뺨을 실룩실룩 움직이며 이를 드러내고 호령하듯 외치며 이치로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략) 특히 이치로가 슬펐던 것은 어찌된 일인지 나라오가 걸을 수 있게 되어 맨발로 그 아픈 땅을 밟고 이치로의 앞을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치로는 모두와 함께 따라 걸으면서 몇 번이나 나라오의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오는 이제 이치로 따위는 잊은듯했습니다. (중략) 그때 나라오가 마침 한 개의 빨간 모서리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요괴의 채찍이 그 작은 몸을 자를 듯 내려왔습니다. 이치로는 데굴데굴 굴러서 그 요괴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나를 대신 때려주세요. 나라오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¹⁸⁾

상기의 세 문장은 작품 「빛의 맨발」의 일부분으로, 형 이치로가 눈길에서 동생 나라오를 보호하는 장면이 중점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이치로와 나라오가 죽음 직전의 환상속에서 요괴를 만났을 때 요괴로부터 동생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형의 모습이 보인다.

<표3>의 작품 6번 「까마귀의 북두칠성(烏の北斗七星)」은 형제가 중심이 되는 작품 전개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형도 동생을 감쌀 겨를도 없이 연인 동지도 번번이 심하게 부딪칩니다.¹⁹⁾

17) 一郎は一つの吹きだまりを越えるとき、思ったより雪が深くたうとう足をさらわれて倒れました。一郎はからだや手やすっかり雪になって転るやうに笑って起きあがりましたが樫夫(は)しろに立ってそれを見てこわさに泣きました。「大丈夫だ。樫夫、泣くな。」一郎は云ひながら又あるきました。けれどもこんどは樫夫がころびました。そして深く雪の中に手を入れてしまって急に起きあがりもできずちぎりのときのやうに頭をさげてそのまゝ泣いてみたのです。一郎はすぐ走り戻って起きました。そしてその手の雪をはらってやりそれから、「さあも少しだ。歩けるが。」とたづねました。「うん」と樫夫は云っていましたがその眼はなみだで一杯になりじっと向ふの方を見口はゆがんで居り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八卷、筑摩書房、1995、pp.291-292

18) 一郎はまるでその赤い眼に吸ひ込まれるやうな気がしてよろよろ二三歩そっちへ行きましたがやとふもとまってしっかり樫夫を抱きました。その恐ろしいものは頬をびくびく動かし歯をむき出して咆えるやうに叫んで一郎の方に登って来ました。(中略)ことに一郎のかなしかったことはどうしたのか樫夫が歩けるやうになってはだしてその痛い地面をふんで一郎の前をよろよろ歩いてゐることでした。一郎はみんなと一緒に追はれてあるきながら何べんも樫夫の名を低く呼びました。けれども樫夫はもう一郎のことなどは忘れたやうでした。(中略) そのとき樫夫がたうとう一つの赤い稜のある石につまづいて倒れました。鬼のむちがその小さなからだを切るやうに落ちました。一郎はぐるぐるしながらその鬼の手にすがりました。「私を代りに打って下さい。樫夫はなんにも悪いことがないのです。」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八卷、筑摩書房、1995、p.297

상기의 문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는 의식에서 동료나 연인보다도 형제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형으로서 동생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문장이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계와 유사하다. 이처럼 형은 다수의 작품에서 부모와 같은 위치에서 조력자 혹은 보호자 역할을 담당했다.

(2) 아버지의 부재와 <형>의 관계

겐지의 가족이 등장하는 작품의 특이점은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보인다는 점이다. 즉 부재에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부재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전혀 언급이 없거나, ②어딘가로 가버리거나, ③존재는 알렸지만 묘사가 표면화 되지 않는 세 종류로 분류 및 정의가 가능하다. 이 세 형태의 부재가 보이는 작품을 <표4>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①언급 없음	②사라짐 · 헤어짐	③언급되었지만 비표면화
1	축제의 밤(祭の晩) 부재가족 : 어머니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 (グスコブドリの伝記) 부재가족 : 부모가 사라짐	축제의 밤(祭の晩) 비표면화 가족 : 아버지
2	눈길 건너기(雪渡り) 부재가족 : 부모	펜넨넨넨 · 네네무의 전기 (ペンネンネンネンネン · ネネムの伝記) 부재가족 : 부모가 사라짐	은하철도의 밤(銀河鉄道の夜) 비표면화 가족 : 누나
3	산배(やまなし) 부재가족 : 어머니	빛의 맨발(ひかりの素足) 부재가족 : 아버지와 헤어짐	빛의 맨발(ひかりの素足) 비표면화 가족 : 어머니
4	다네야마가 들판 (種山ヶ原) 부재가족 : 아버지	겐쥬 공원숲(虔十公園林) 부재가족 : 중반부터 아버지 무언급	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郎) 비표면화 가족 : 어머니

<표4> 부재의 형태

이 가족 구성원의 부재 중 조력자 혹은 보호자로서 등장하는 <형>은 특히 아버지의 부재와 관계가 있다. 「눈길 건너기」,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 「바람의 마타사부로」 등과 같이 아버지가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즉 아버지의 부재가 보이는 작품은 형이 반드시 등장하며 형의 역할이 대두되는 특징이 보인다. 아버지의 부재가 보일 경우 형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강화된다. 다음의 예문은 아버지와 형이 동시에 등장하는 「산배(やまなし)」의 일부분이다. 아버지의 존재가 있고 없음에 의해 형의 역할이 다름을 앞서 조력자, 보호자로서 등장하는 예문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9) 兄貴の鳥も弟をかばふ暇がなく、恋人同志もたびたびひどくぶつかり合ひます。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二巻、筑摩書房、1995、p.41

“역시 난 거품이 커.”

“형. 일부러 크게 뺐은 거지. 나도 일부러 뺐으면 더 크게 할 수 있어.”

“해봐. 뭐야! 겨우 그 정도야. 잘 봐. 형이 할테니까 잘 봐. 봐봐. 어때. 크지?”

“크지 않아. 똑같아.”

“가까워서 자기 것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럼 함께 뺐어 보자. 좋아? 자!”

“역시 내쪽이 크지?” “정말이야? 그럼 한 개 더 뺐어봐.” “안돼. 그렇게 뺐어 올라가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라. 자. 늦었어. 내일 이사도에 안테려간다.” “아버지. 우리들 중 어느 쪽 거품이 더 커요?” “그건 형쪽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쪽이 더 커요.” 동생은 울듯이 되었습니다.²⁰⁾

아버지가 함께 등장하는 상기의 작품 「산배」에서 형과 동생은 서로 경쟁을 하는 동등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처럼 동등한 형과 동생의 관계구도는 형이 조력자 혹은 보호자로서 등장하는 작품들과 구별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 존재의 유무라는 다름이 보인다. 형이 동생에 대해 보호 혹은 무언가를 배려해야 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 있고 거품 크기를 판정해주는 아버지가 중재자 즉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거나 중반부부터 사라진 <표3>의 작품들과 다르게 형의 조력자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없다. 아버지의 부재가 보이는 작품에서 보호자 역할을 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형>이 묘사된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존재여부에 따라 <형>의 역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나한테 새 옷을 입혀준다고 했어.” 나라오는 또 울었습니다. 이치로도 어쩐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아하하하, 바람의 마타사부로, 좋은 말을 했구나. 4월이 되면 새 옷을 사줄게. 슬픈 일이 아니잖아.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이치로도 옆에서 바라보며 달렸습니다.²¹⁾

20) 『やつぱり僕の泡は大きいね。』 『兄さん、わざと大きく吐いてるんだい。僕だつてわざとならもつと大きく吐けるよ。』 『吐いてごらん。おや、たつたそれきりだらう。いゝかい、兄さんが吐くから見ておいで。そら、ね、大きいだらう。』 『大きないや、おんなじだい。』 『近くだから自分のが大きく見えるんだよ。そんなら一諸に吐いてみやう。いゝかい、そら。』 『やつぱり僕の方大きいよ。』 『本統かい。ちゃ、も一つはくよ。』 『だめだい、そんなにのびあがつては。』 『またお父さんの蟹が出て来ました。』 『もうねろねろ。遅いぞ、あしたイサドへ連れて行かんぞ。』 『お父さん、僕たちの泡どつち大きいの』 『それは兄さんの方だらう』 『さうぢゃないよ、僕の方大きいんだよ』 弟の蟹は泣きさうになり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二卷、筑摩書房、1995、pp.128-129

21) 「お父さんおりゃさ新らしきの着せるって云ったか。」 樞夫はまた泣きました。一郎もなぜかぞつとしました。けれどもお父さんは笑ひました。「ああははは、風の又三郎あ、いゝ事云ったな。四月になつたら新らし着物買つてけらな。一向泣ぐごとあないぢゃい。泣ぐな泣ぐな。」 「泣ぐな。」 一郎も横からのぞき込んでなぐさめ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八卷、筑摩書房、1995、p.285

상기의 예문은 아버지와 형이 동시에 등장하지만 형과 동생간에 보호관계가 설정된 「빛의 맨발」의 일부로서 형이 우는 동생을 달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동시에 등장하지만 형과 동생 사이에 보호관계가 형성된 것은 작품 중반부터 아버지의 부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호자로서의 형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 작품 「빛의 맨발」은 초반에는 아버지가 함께 등장하지만 중반부부터 아버지를 떠난 두 형제만이 남게 되고 형이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아버지와 형제가 동시에 등장했지만 이어지는 아버지의 부재에 의해 형이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부재 여부에 따라 형의 역할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빛의 맨발」은 아버지와 헤어지는 장면을 삽입하여 아버지의 부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겐쥬 공원숲」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형이 동생의 적극적 조력자로서 등장한다.

“엄마, 나, 삼나무 묘목 7백그루, 사줘”

겐쥬의 엄마는 반짝이는 쇠스랑의 움직임을 멈춘 채 뚫어지게 겐쥬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삼나무 묘목 7백그루? 어디에 심게?”

“우리 집 뒤 들판에”

그때 겐쥬의 형이 말했습니다.

“겐쥬, 거기는 삼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야. 그보다도 밭일을 조금이라도 돕거라.”

겐쥬는 멧쩍은 듯 머뭇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겐쥬의 아버지가 저쪽에서 땀을 닦으며 일어서더니

“사줘라. 사줘. 겐쥬가 지금까지 무엇 하나라도 부탁한 적이 없었잖아. 사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겐쥬의 엄마도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²²⁾

상기의 예문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동생 겐쥬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이때 형은 동생의 의견을 반대하고 아버지가 동생 겐쥬의 의견을 들어준다. 형과 아버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산배」와 같은 패턴으로서 세 사람이 동시에 등장할 때 형과 동생은 대립하고 아버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겐쥬 공원숲」이 작품에서, 이후부터 아버지는 작품 마지막까지 언급이 전혀 없는 형식

22) 「お母、おらさ杉苗七百本 買って呉ろ。」度十のおっかさんはきらきらの三本鍬を動かすのをやめてじっと度十の顔を見て云ひました。「杉苗七百ど、どごさ植らい。」「家のうしろの野原さ。」そのとき度十の兄さんが云ひました。「度十、あそごは杉植でも成長らない奴だ。それより少し田でも打って助ける。」度十はきまり悪さうにもじもじして下を向いてしまいました。すると度十のお父さんが向ふで汗を拭きながらからだを延ばして「買ってやれ、買ってやれ。度十あ今まで何一つだて頼んだごとあ無いがったもの。買ってやれ。」と云ひましたので度十のお母さんも安心したやうに笑ひました。

宮沢賢治『(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卷、筑摩書房、1995、p.104

의 부재 형태로 묘사되고 형이 동생의 삼나무 키우기 조력자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등장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형의 역할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형의 등장형태		예제 작품 및 형제 관계 설명	
1	아버지와 형 동시등장	①	산배(やまなし) 형과 동생의 거품경쟁에 의한 약간의 갈등구조
2	처음부터 아버지 부재	①	눈길 건너기(雪渡り) 형들이 여우 환등회에 초대받은 동생들 보호
3	중반부부터 아버지 부재	①	빛의 맨발(ひかりの素足) 눈 내린 산속에서 적극적으로 형이 동생 보호
		②	겐쥬 공원숲(度十公園林) 삼나무 심기를 처음엔 반대하던 형 아버지의 찬성으로 삼나무를 얻은 동생 겐쥬 아버지의 언급이 사라지고 형이 삼나무 심기 도움

<표5> 아버지의 등장 형태와 형의 역할 변화

아버지의 등장형태에 따른 <형>의 양상변화는 상기의 <표5>와 같다. 아버지의 존재와 형의 역할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표로서 아버지의 부재에 따라 형의 역할이 다르고 보호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다양한 형제 관계와 <형>의 역할

형은 오빠, 형, 사촌형 등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 중 사촌 관계의 형으로서 등장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작 품	작품개요 및 사촌형에 관한 묘사
1 할미꽃 (おきなぐさ)	종달새를 부러워하던 할미꽃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바람에 날려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것을 본 종달새는 두 할미꽃 영혼을 위로하며 하늘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사촌인 새빨간 아네모네 꽃, 친구 은방울꽃, 엘레지꽃 모두 이 할미꽃을 싫어하는 이는 없습니다. ²³⁾
2 축제의밤 (祭の晩)	축제날 마을에 나타난 산사나이를 곤경에서 구해주고 보답 받는 주인공 료지 이야기. 사촌형 다쓰지는 료지를 놀리고 세상물정에 밝은 듯 영악한 면모를 보임 다쓰지는 그 곡예소의 간판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너 이 가게에 들어갔었니? 여기는 말야, 공기짐승이니 뭐니 말하지만 사실은 소 위장에 공기를 넣은 거야. 이런 곳에 들어가다니. 너 바보구나.” ²⁴⁾
3 기러기 동자	말 안 듣는 사촌 동생의 모습이 묘사됨

(雁の瞳子)	스리아님이 사촌동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런 무모한 살생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촌 동생은 쌀쌀맞게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²⁵⁾
	(그렇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더욱 재미있어지네요.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지요. 그런 것은 옛날 중들이 한 말이지요. 봐봐요, 저기 기러기가 가네요. 내가 멈추게 할게요.) 라고 사촌동생은 철포를 갖춰서 달려갔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²⁶⁾

<표6> 사촌관계가 나오는 작품

작품 「축제의 밤」 과 「기러기 동자」 두 작품에 나타난 사촌형 혹은 사촌 동생은 지금까지 살펴 본 친형제 관계에서 나타난 조력자로서의 형과 순종하는 동생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롱하는 사촌, 말 안 듣는 사촌으로 묘사되며 사촌 관계는 겐지의 의식 속에서 가족이 가지는 강한 결속력과는 구별되는 별개성이 나타났다. 또한 사촌관계에서 형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미꽃」에서는 사촌과 타인을 동등하게 열거한 점이 주목된다. 타인과 대등하게 열거 가능한 사촌은 결국 타인과 동일시되며 타인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반목적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는 가능성 또한 예상된다. 사촌관계는 타인과 마찬가지로 친밀성이 약화된 즉 가족이 가진 결속력과는 별개로 구분 된 것이다.

형제 관계는 ①형과 남동생, ②오빠와 여동생, ③누나와 남동생, ④언니와 여동생 등의 패턴이 있는데 겐지 동화에서는 주로 형과 남동생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 패턴은 <표1>로 확인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오빠와 여동생 패턴이 많고 누나와 남동생은 「은하철도의 밤」에서만 잠깐 언급되며 언니와 여동생 관계는 정황상으로는 「산모퉁이(山地の稜)」에 나오지만 구체적 전개가 없기 때문에 자매 관계의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도 형제

23) まっ赤なアネモネの花の従兄、きみかけさうやかたくりの花のともだち、このうずのしおげの花をさらひなものはありません。

宮沢賢治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九卷、筑摩書房、1995、p.179

24) 達二はその見世物の看板を指さしながら、声をひそめて云ひました。「お前はこの見世物にはいったのかい。こいつはね、空気駄だなんて云ってるが、実はね、牛の胃袋に空気をつめたものださうだよ。こんなものにはいるなんて、おまへはばかだな」

宮沢賢治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卷、筑摩書房、1995、p.179

25) 須利耶さまがお従弟さまに仰っしゃるには、お前もさやうな慰みの殺生を、もういゝ加減やめたらうだと、斯うでございました。ところが従弟の方が、まるですげなく、やめられないと、ご返事です。

宮沢賢治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九卷、筑摩書房、1995、p.280

26) (さうかもしれないよ。けれどもさうでないかもしれない。さうだとすればおれは一層おもしろいのだ、まあそんな下らない話はやめろ、そんなことは昔の坊主どもの言ふこった、見ろ、向ふを雁が行くだらう、おれは仕止めて見せる。) と従弟の方は鉄砲を構へ [] て、走って見えなくなりました。

宮沢賢治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九卷、筑摩書房、1995、pp.280-281

관계 묘사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특징은 시(詩)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제 여동생 도시를 소재로 삼았지만 동화작품에서는 가장 친밀했던 여동생의 이야기를 배제하려 한 흔적으로 이해된다. 겐지가 동화를 통해서 '환상'을 시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하고 묘사하려 한 것이 이러한 소재적 특징에도 나타났다.

4. 맺음말

겐지는 가족을 작품 소재로서 자주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겐지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가족이 등장하는 작품의 빈도수가 전체 작품의 약 45%에 이르는 것을 밝혀 보았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 다음으로 형이 자주 등장하며 형의 역할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적 갈등을 겪었던 아버지나, 가족 중 가장 친밀했던 여동생 혹은 자신을 실제 모델로서 그려낸 작품들이 보이는 가운데 실제 겐지 가족 중에는 없는 <형>이라는 모델을 빈도수 높게 묘사하고 있었다. 특히 조력자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 <형>은, 겐지가 표현한 가족의 특징 중 하나인 가족 구성원의 부재,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부재와 연관성이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가 보이는 경우 <형>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강조 되었지만 아버지와 형제가 동시에 등장할 경우 형제는 동등한 관계선상에 있으며 경쟁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형>의 자세는 장남으로서 느끼는 겐지 자신의 책임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 속 <형>의 이상적 모델은 그 자신의 장남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반영된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형은 주로 주인공의 주변인물로서 등장하지만 또 하나의 겐지를 형상화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아버지가 함께 등장하지 않는 경우 강화된 형의 역할은 형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했던 고대(古代) 모계사회와 유사성이 보인다. 아버지의 부재가 보이고 형의 역할이 강조된 모계사회와의 유사성은 실제로 가부장적 아버지와 심리적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겐지가 현실의 반대급부로서 모계사회의 심상(心象)속 가족을 형상화하면서 <형>의 역할이 대두된 것은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였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혈연으로 형성된 형제 관계는 친밀함이 내재된 긍정적 이미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구조를 가질 수 있는 요소 또한 충분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겐지 작품 속 형제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었

다는 점은 겐지 창작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결속과 친화라는 공동체 성향이 기본적으로 내재된 겐지의 형제인식은 특히 친형제 관계에서만 적용되었다. 이것은 사촌관계를 친형제와는 다르게 다소 소원하거나 혹은 반목관계로 묘사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본 고찰을 통해 나타난 겐지의 가족에 관한 높은 관심 및 구별된 사촌 의식 등은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는 이타적 삶을 지향한 겐지조차도 가족이라는 자기애적 대상을 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와 또 하나는 겐지에게 있어서 가족도 타인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두 가지 관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본 고찰이 남긴 향후 과제로서 한국과 일본의 가족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를 기초로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吳善華(1996) 「「よだかの星」作品論」 『国文学解釈と鑑賞』第61卷11号、至文堂、p.56
- 中地文(2000) 「ひかりの素足（一浪とは誰か）」 『国文学解釈と鑑賞』第65卷2号、至文堂、pp.49-50
- 原子朗(1999) 『宮沢賢治語彙辞典』東京書籍
- 宮沢賢治(1995)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八卷、筑摩書房、p.10, p.285, p.289, pp.291-292, p.297,
- 宮沢賢治(1995)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九卷、筑摩書房、p.179, p.217, pp.280-281
- 宮沢賢治(1995)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卷、筑摩書房、pp.104-105, p.106, p.179
- 宮沢賢治(1996)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一卷、筑摩書房、pp.186-187
- 宮沢賢治(1995) 『(新)校本宮沢賢治全集』第十二卷、筑摩書房、p.41, p.107, p.237 pp.128-129
- http://why.kenji.ne.jp/kohon/douwa_f.html

要 旨

宮沢賢治の童話に表れた〈兄〉のイメージに関する一考察

日本近代を代表する作家である宮沢賢治は、詩を含め、童話、短歌等、多様な文学ジャンルで活動した。個性の強い語彙を使ったり、風、雲、木、鉱物等の自然や、宇宙等の素材を繰り返し使用したりして独特の宇宙的感觉や宗教的心情にみちた詩と童話を残した。

彼の作品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人物といえば、本人自身の家族として、相互間で宗教の葛藤があった父親や、誰よりも親密性を感じていた妹(トシ)であろう。作品中に家族に関する内容や人物がよく描がられている理由もこの点にあると思う。今回の研究により、宮沢賢治の童話に表れた家族、その中でも母親、父親の次に割合が高く登場する〈兄〉のイメージに関して分析し、実の兄がいない賢治にとって〈兄〉の表象を明らかにしてみた。

生前、賢治が残した童話作品は『校本宮沢賢治全集』（筑摩書房）に、151篇が載せられている。その中で、重複した作品を除いた137篇の作品の中で〈家族〉が登場する作品は約62篇であり、又、62篇の作品の中で〈兄〉なる人物が描がられている作品は、約27篇で、本文の〈表1〉、〈表2〉のようになる。全般の童話作品の中で約45%の作品に家族が登場し、其の中で〈兄〉は約43%の作品に登場している。以上のような高い頻度数は関心度と比例することである。

作品に表れた兄の主な役割は弟や妹の方を手伝うことや助けるようないわゆる、助力者及び保護者としての役割である。兄の助力者や保護者としての役割、このことは父親の不在性とも関連性が見える。家族構成員の欠如は賢治の童話における一つの特徴であるが、特に兄の助力者や保護者としての役割が強化されている時は父親が登場しない場合が多かった。父親が登場しない場合、役割が強化されている〈兄〉は、兄が家を守るべきであった古代の母系社会と類似性がある。父親の不在と関連性がある兄の役割は、言い換えれば、心象の母系社会の発露ではないだろうか。童話作品の中で母親の登場が一番数多いことも賢治の心象の母系社会を証明していると思う。いわゆる、実際の父親との葛藤から心象の母系社会が発したことはないだろうか。又、宮沢賢治において関心度が非常に高い家族、其の中でも〈兄〉という人物は長男としての賢治、本人の理想的な兄の姿勢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又、兄弟という認識においても、基本的には親密感が内包されているが、従兄弟の関係はあまり親しくないパターンも見られる。兄弟のパターンは兄と弟、兄と妹、姉と弟等があるが、兄と弟の形の方が一番多かった。

本考察を通して証明された、賢治においての家族に関する高い関心度や親兄弟と従兄弟を区分することは、利他主義であった賢治さえも家族というものは越えられない自己愛的なものであったのか、もしくは、賢治において家族も他人であったのかという論議を呼びおこすことも事実である。此れゆえに、韓国と日本の家族に関する認識を根本として考察してみることがこれからの課題になろうかと思う。

キーワード：兄、家族、兄の役割、家族構成員の不在、父親の不在、助力者、保護者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